

최대 미술축제 광주비엔날레 개막

43개국 165명 참여·300점 전시

첫 거대 규모 북한미술전 주목

“직접 눈으로 보게 중요하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여러가지 경계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과 개인간의 경계, 충돌들이 공감을 얻을 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미있게 봐달라”(김성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이번 전시는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카이브 라운지를 돌아보듯 과거의 시간을 성찰을 하고 역사적인 회고의 층을 더해준다는 취지로 전시를 구성했다. 편안한 쿠션 있는 전시장, 입체적인 잡지를 보는 것처럼 구성했다. 즐기시길 바란다”(주제전 ‘귀환’ 큐레이팅한 데이비드 테)



2018광주비엔날레가 6일 개막했다. 사진은 광주비엔날레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큐레이터들이 설치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화만을 전시한 대규모 북한미술전은 세계 처음이다. 사회주의와 사실주의를 보여주는 전시이자, 북한미술의 다양성을 전례없는 규모로 담았다. 북한의 미술과 문화가 다양하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문범강 교수 조지타운대학 교수)

6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위적인 현대미술 축제인 2018광주비엔날레가 개막했다.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을 타이틀로 43개국 165작가가 참여해 300여 점을 선보인다.

단일 감독제가 아닌 11명 큐레이터가 참여하면서 개최지 광주를 새롭게 조명함과 동시에 동시대 인류의 과거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 대응책을 모색하는 다층적인 전시를 시도했다.

이번 전시는 광주비엔날레가 첫 시작된 1995년으로 소환해 개발·냉전·분단·난민·격차·이주 등 묵직한 성찰·비판 메시지를 전

한다. 전시공간도 국내 현대미술의 발전지 역할을 했던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확장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활용되었다.

제12회 광주비엔날레는 11명 큐레이터가 꾸미는 주제전과 함께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해외 우수 미술기관 참여의 위성프로젝트인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펼친다.

2018광주비엔날레 주제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민족주의에 대한 저서인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에서 차용했다. 세계화 이후 민족적·지정학적 경계가 재편되고 있는 현상 속에서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게 굳건해지고 있는 경계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으로 조망했다.

2018광주비엔날레 다수 큐레이터인 스크라라 킴(Clara Kim) 테이트모던 국제미술 수석큐레이

터 그르티야 가위웡(Gridthiya Gaweewong) 짐 톰슨 아트센터 예술감독 △크리스틴 Y. 김(Christine Y. Kim) LA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리타 곤잘레스(Rita Gonzalez) LA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데이비드 테(David Teh)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정연심 홍익대학교 교수 △이완 쿤(Yeewan Koon) 홍콩대학교 교수 △김만석 국립큐레이터 겸 미술생태연구소 소장 △문범강(B.G. Muhn)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겸 작가 등 11명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 학자 등으로 지구촌 역사와 정치적 현상, 이주, 난민 등의 경계 지점에 대한 전시 기획과 저술 활동을 펼쳐왔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제12회 2018광주비엔날레의 69일 항해를 알리는 개막식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광주비엔날레 앞 광장에서 열었다. /뉴스

'바이올린 여제' 음악으로 한국 널리 알렸다

정경화, '국가브랜드대상' 예술부문 수상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70)가 최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국가브랜드대상'에서 예술부문 상을 받았다. 예술을 통한 한국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바이올린 여제' 정경화는 아시아 음악가로서는 드물게 1970년대 초부터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활약했다. 도이치그라모폰(DG), 데카, RCA, EMI, 워너 등 세계적인 레이블에서 서른세 장의 정규앨범을 발매했다. 카네기홀 20회 연주, 영국 프롬스 9회 출연 기록도 보유했다.

고희에 이르는 최근까지도 '바이올린 성경'이라 불리는 바흐의 솔로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전곡반을 발표하고 베이징, 상하이, 서울, 도쿄, 오사카, 런던, 뉴욕 등지에서 20회 순회연주했다. 작년에는 크라이슬러, 그뤼미오, 밀스타인 등과 함께 '그라모폰 명예의 전당' 바이올린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피아니스트 조성진(24)과 듀오 프로그램으로 전곡을 들고 있다. 12일 예술의전



당 30주년 기념콘서트의 하나로 이 공연장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이 투어의 피날레다.

/뉴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식, 오늘 프랑스로 열려

우루과이 교육문화부 등 3곳 선정

2018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 단체로 ▲ 아프가니스탄 비영리단체인 '교육을 위한 아프가니스탄 지원(AAE, Aid Afghanistan for Education/소외된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교육 촉진 프로그램)', ▲ 우루과이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in Uruguay/영속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유네스코는 1965년 9월 8일 '세계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로 정하고, 매년 이날을 기념해 국제사회의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시상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그 일환으로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을 알리고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자 1989년에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2017년까지 52개(명) 단체 및 개인에게 시상했다.

▲아프가니스탄 6개 지역 여성 3000명에 교육 혜택 부여

'교육을 위한 아프가니스탄 지원'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많은 이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정규 교육에서 소외된 여성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완전

히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

20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의 6개 지역에서 실시된 '소외된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교육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300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이수생 중 80%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거나 안정적인 취업에 성공했다. 최근 '교육을 위한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아프가니스탄 교육부는 26개 지역, 여학생 1만2500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우루과이 교육문화부의 '영속적인 학습' 프로그램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이들에게 문해 및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별 문해 수준에 맞게 고안된 방법으로, 문해, 수리, 직업기술 등을 결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9500명의 학습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중 8000명이 이수했고 이수자 중 68%가 여성이다.

이번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시상식은 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572돌 한글날을 맞이해 수상 단체 관계자들을 국내에 초청해 한국의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뉴스

무형문화재 예능 분야 고수가 한자리에 모인다

국립무형유산원, 14-15일

'가무별감, 세 가지 이야기' 개최

진급보호무형문화재 종목들로 꾸민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단은 14~15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국가진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가사·발탈·줄타기 등 3가지 종목을 극 형식으로 묶어낸 브랜드 공연 '가무별감, 세 가지 이야기'를 선보인다.

'가무별감, 세 가지 이야기'는 가사·발탈·줄타기를 이야기로 엮은 극으로 구성된 특별한 정통공연이다. 각 종목 특색을 고스란히 살렸다.

또한 무형문화재 예능 분야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을 함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공연을 위해 서로 시간을 맞춰 여러 번 함께 연습하며 공연에

공을 들였다.

이번 공연에는 본인 종목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출연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송용태 보유자 가무별감·취발이·국왕·양반 등 1인 4역을 해내며 극을 이끌어간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흥현수 이수자가 '가사를 부르는 여인'을,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문영식 전수교육조교가 '발탈 탈꾼'을,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정준태 이수자가 '발탈 재담꾼'을 연기한다.

'줄타는 어름산이'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제21호 안성남사당놀이 박지나 전수자가 맡았다.

이번 공연 연출가 이주아 감독은 오페라 연극 '나사의 회전(2017)' '갯마을차차(2018)' 등 다수 작품을 연출했다.

관람료는 무료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단 웹사이트, 네이버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도 할 수 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